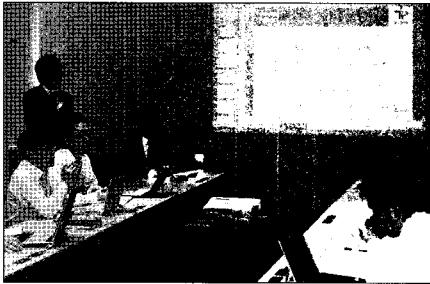


회원사 소식

□ 하이닉스반도체, 해외법인 대상으로 독점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교육 실시

하도급 단가 결정 및 조정 매뉴얼도 제작해 사내 유관 부서에 배포



(주)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해외법인 주재원 및 현지 채용인들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일본 및 대만 법인에서 독점금지(Antitrust)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약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상협력팀 손상수 부장이 Antitrust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 집행 동향 및 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무국 노형구 차장이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업무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재원 및 현지 채용인들의 업무 관련 이해를 고양시켰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또한, 같은 달 27일에는 하도급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무팀이 제작한 하도급 단가 결정 및 조정 매뉴얼을 구매실 등의 사내 유관 부서에 배포하는 한편, 구매 업무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준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준법경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십자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공시

자회사 6개와 손자회사 4개 보유

녹십자홀딩스(회장 허일섭)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반지주회사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됐다고 5월 11일 공시했다.

(주)녹십자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상장회사인 (주)녹십자와 녹십자생명보험(주), (주)녹십자헬스케어, (주)녹십자엠에스, (주)녹십자이엠, 상아제약(주) 등 6개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게 됐다.

이와 함께 (주)녹십자백신과 (주)지씨제이비피, (주)지씨에이치맨피, (주)녹십자이씨 등 4개사는 손자회사가 됐다.

▣ 푸드머스,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세미나 개최

현업 담당자들, 실제 업무 수행시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방안 모색



(주)푸드머스(대표 제환주)는 5월 7일 서울사무소에서 가맹사업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S 영업본부 유상석 본부장을 비롯하여 SL 1, 2팀, Kids팀원, 경영지원실 법무파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업무 주관부서인 법무파트에서 '가맹사업거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가맹사업법의 주요 규정을 설명하고 법규 준수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자들은 실제 가맹사업거래 시에 가맹사업법 위반 리스크가 있었던 사항은 없었는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 간에는 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푸드머스는 지난 2월 26일에는 하도급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본부의 전 임직원과 경영지원실 법무파트가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세미나를 개최, 현업 담당자와 공정거래 주관부서인 법무파트 간에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와 공정거래업무 주관부서인 법무파트 간의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정거래 법규 준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푸드머스는, 하도급업체와 가맹사업자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 삼성정밀화학, 이희인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

삼성정밀화학(주)(대표 배호원)은 4월 23일 임원의 업무위촉 변경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 이희인 경영지원실장(상무)을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 현대오일뱅크, 공정거래 준수 자율 서약

노조위원장 포함 1800명 전원 참여...윤리경영 다짐도

현대오일뱅크(주)(대표 서영태)는 3월 29일 1,800여 명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여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공정경쟁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3월 15일부터 2주일에 걸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준수를 다짐하는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직접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사내 공지했다.

그 결과, 서영태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전임자까지 전 사업장의 1,800여 명에 이르는 모든 임직원이 26일까지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서에 서명, 해당 부서에 제출한 것

자율 준수 서약서에는 △ 공정거래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지시, 승인, 방조 금지 △ 경쟁사 모임이나 연락, 정보 교환 등 직·간접적인 접촉 금지 △ 모든 정보는 경쟁사가 아닌 시장에서 취득 △ 공정거래 문익은 반드시 실무 부서 사전 검토과정을 거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점검을 위한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적 자체 점검, 공정거래 주관부서가 진행하는 정기 점검, 법무팀과 감사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가동 등 공정거래 위반으로 발생 가능한 업무 리스크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놴다.

▣ 롯데쇼핑, GS백화점 별도법인 '롯데스퀘어' 출범시켜

GS마트는 공정위 결합심사 후 확정

롯데쇼핑이 GS스퀘어(백화점)와 GS마트 중 백화점을 분리하여 개별법인인 '롯데스퀘어'를 출범시켰다.

롯데쇼핑(주)대표 이철우는 4월 22일 GS스퀘어 3개 점포를 인수·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롯데스퀘어'를 신설하고, 회사 주식 전량을 5,200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롯데쇼핑 영업본부장 이재현 전무를 선임했다.

롯데쇼핑측은 마트부분을 롯데마트 부문과 롯데스퀘어 중 어느 쪽으로 통합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서 백화점 부분이 먼저 결정됐기 때문에 백화점만 확정해 출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GS마트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 결과는 5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GS마트의 인수 형태도 확정지를 방침이다.

▣ 금호렌터카, KT 계열로 새 출발

신임 이희수 사장 취임...2013년 내 매출 1조원 달성할 계획

KT(대표 이석채)는 3월 31일자로 금호렌터카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렌터카업체인 금호렌터카 4월 1일부터 KT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신임 대표는 KT렌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희수 사장이 취임했다.

금호렌터카는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영업망과 5만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 1위의 렌터카 회사로, 이번 인수를 통하여 KT그룹의 보유 렌터카 대수는 6만대로 늘어났으며 렌터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30%까지 끌어올리게 됐다.

금호렌터카는 향후 KT가 보유한 IT 기술, 고객인프라, 자산과 결합해 기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종합차량관리(ACS, Automotive Care System), 차량 공유, 텔레매틱스, 중고차 매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KT와 영업망을 공유하여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차량 렌탈과 통신상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호렌터카는 이를 바탕으로 2009년 기준 4,772억 원인 매출을 2013년까지 1조 원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T렌탈과 금호렌터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 이희수 신임 대표는 “금호렌터카는 KT 그룹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를 선보여 2013년까지 매출액 1조 원, 시장점유율을 35%를 달성하는 한편, KT의 자산을 활용한 비용 효율화를 통하여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대건설, 협력업체 상생경영 강화

‘해외진출 희망 협력업체 교육과정’ 개설·운영

현대건설(주)(대표 김종겸)은 4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해외진출 희망 600여 개 협력업체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희망 협력업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현대건설이 올해 발표한 2015년까지 매출 23조 원, 수주 54조 원, 영업이익률 9.5%를 달성해 글로벌 Top 20에 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 글로벌 원 파이오니어(Global One Pioneer)’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

4월 28일 현대건설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에서는 중동의 국제관계,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등 해당 국가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돕는 과목과 함께, 현지 인력관리와 구매 관련 등 실무에 이르기까지 협력업체들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해외진출 희망 협력업체 교육은 5월 24일과 6월 9일 등 2일 간 진행되며, 7월부터는 격월로 정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협력업체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760여 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 연계 상생협력 펀드 조성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및 현금지급 비율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SK에너지, 대·중소기업 글로벌 녹색환경시장 동반 개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과 '녹색환경산업 대·중소기업 그린 상생 협약' 체결



SK에너지(주)대표 구자영)는 국내 핵심 환경기술업체 10개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녹색환경사업 개척을 위해 '대·중소기업 그린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4월 9일 김동섭 SK에너지 기술원장, 김상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협약대상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K에너지 서린빌딩 35층 루비룸에서 협약식을 갖고,

대·중소기업 환경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SK에너지의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R&D 역량과 국내의 마케팅 능력,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에 중소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상호 결합하여 국내 환경사업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상생 협약식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그린프라, 대일이앤씨, 동명엔터프라이즈, 부강테크, 세화엔스텍, 아름다운환경건설, 에코데이, 에치투엘, 코레드, 포스벨 등 10개 업체이며, 이들이 보유한 기술은 수처리·해수담수화·폐자원 에너지화·CDM 및 토양 정화 등 녹색환경산업분야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녹색바람을 타고 환경 관련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실정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이미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진 SK에너지가 한국산업환경기술원과 협력하여 환경 산업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SK에너지의 김동섭 기술원장은 "SK에너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환경산업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일조하고 참여한 기업들과의 상생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LG하우시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최고인사책임자인 윤태순 상무를 CP 책임자로 선임

LG하우시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

LG하우시스(대표 한명호)는 지난 4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고인사책임자(CHO)인 윤태순 상무를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책임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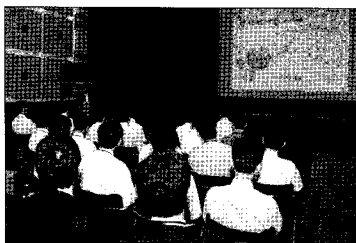
한명호 사장은 이 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준수에 관한 엄중한 다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업의 진정한 역량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으며, 시장경쟁을 이겨낸 경쟁력만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존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또한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장은 이어 “경쟁사와의 담합행위,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반한 임직원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중징계할 예정”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LG하우시스는 CP 도입에 따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고 자율기준 마련, 공정거래법규 준수 여부 진단과 상담을 담당하는 전담 운영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관련 문서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대구백화점,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공정거래법 준수意識 고취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주제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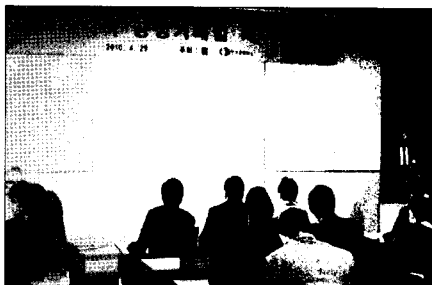


(주)대구백화점(회장 구정모)은 차장급 이하 사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의 이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백화점은 5월 6일 오전 사내 프라임홀에서 진행된 공정거래법 교육에서, 마케팅총괄실 구승본 실장이 강사로 출강해 사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意識을 고취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교육은 총 2차에 걸쳐 나눠 진행됐으며, 2차 교육은 5월 10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됐다.

▣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공정거래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4월 2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롯데건설, 삼성, 현대자동차, GS칼텍스 등 주요 대기업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로펌인 ALRUD와 공동으로 '러시아 공정거래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율촌의 이화준 러시아변호사는 '러시아 공정거래규제와 투자시 법적 유의사항' 관 주제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변경, 경쟁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변경된 러

시아의 신경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김경연 변호사도 '러시아 공정거래규제에 대한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러시아 공정거래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러시아 법무법인 ALRUD의 맥심 알렉 세예프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외국기업에 대한 러시아 공정거래 최근 규제의 실태와 현지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그는 강의를 통하여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유념해야 할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법무법인 태평양,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은 5월 6일 서울 역삼동 제1별관 강당에서 특허청 사무관 및 의약산업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인혜 사무관이 '심사지침의 전면개정 경위 및 향후 공정위의 심사지침 시행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전면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특허풀(Patent Pool)이나 기술표

준을 통한 특허권 남용, 특허소송의 남용행위 등 특허권행사의 남용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대폭 신설되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는 '의약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행사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제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제가 활발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정위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말하고 "이번 심사기준 전면개정을 계기로 의약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사이의 분쟁도 빈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 개최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 담당자 초청...회원사들의 의견 사전 수렴



한국제약협회는 3월 31일,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회원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설명회에 앞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와 일선 영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 질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제조업 감시과장과 권순국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제품 설명회, 부스 참여, 기부금 지원, 의약학 학술대회, 접대비 기준 등 규약 세부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체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 CCO 최고고객책임자 포럼 개최

공정위 한철수 국장 초청해 '2010년 공정위 소비자 정책 방향' 특강 진행

CCO 최고고객책임자 포럼(회장 성장경 남양유업 총괄본부장은 5월 12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을 초청, 석찬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한철수 국장이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 방향'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CCO 최고고객책임자 포럼 회장인 남양유업 성장경 총괄본부장은 "최근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지자체들까지도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고고객책임자 포럼이 각 기업들의 소비자 증시 경영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CCO(Chief Customer Officer) 최고고객책임자 포럼은, 기업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유지개선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2007년 9월에 발족한 기업 최고고객책임자 및 CS 관련 임원 대상 회의체다.

포럼에는 남양유업, 농심, 웅진코웨이, 유한킴벌리, 한국야쿠르트, SK텔레콤 등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기업 3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